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의 타당도 검증 및 잠재평균 비교*

황매항** · 이아라 · 박은혜***

초 록

본 연구는 초·중·고 남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목표 실현을 방해한다고 지각하는 요인을 측정하는 진로장벽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는 자기이해의 부족, 학습 효능감,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진로 및 직업 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의 7요인의 42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검사의 신뢰도 및 문항의 양호도를 검증하기 위해 705명의 초·중·고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검사가 시행되었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한 구인타당도 검증을 통해 요인수가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또한 진로장벽 척도가 초·중·고등학교에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척도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는 초·중·고 남학생에게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초·중·고 남학생이 진로장벽의 요인별로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잠재평균을 비교·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지면서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 및 한계,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남학생, 진로장벽, 진로장벽 척도, 다집단 분석

* 이 연구는 2004학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협동연구과제(KRF-2004-042-B00152) 지원에 의해 수행됨.

** 경인교육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I. 서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된 장벽 요인들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특히 어떤 유형의 진로장벽들을 보다 심각하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진로지도 및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진로선택이나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에 있어서 진로장벽 요인을 평가하여 진로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극복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의 청소년들이 보다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

진로장벽에 대한 초기의 논의들은 주로 여성의 진로발달과 관련되어 이루어졌다(예, Farmer, 1976; Fitzgerald & Crites, 1980; Matthews & Tiedeman, 1964; O'Learly, 1974). 이러한 논의에 힘입어 근년에는 진로장벽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었다. 진로장벽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측정도구는 Swanson 등(Swanson & Tokar, 1991b; Swanson & Daniels, 1995b)이 개발한 진로장벽 검사(CBI,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와 McWhirter 등(McWhirter, 1997; McWhirter, Hackett, & Bandalos, 1998)이 개발한 장벽지각척도(PBS, Perception of Barriers Scales) 등이다. 측정도구의 개발과 함께 진로장벽과 여러 변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Lent & Brown, 2001; McWhirter, Rasheed, & Crothers, 2000).

이처럼 미국을 비롯한 국외에서는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데 반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손은령(2001)은 우리나라 여대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고, 김진숙, 이종희(2003)는 일반계 여고생을 대상으로, 이은설(2005)은 초·중·고등학생 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진로장벽 측정 도구들은 주로 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들은 여학생이나 성인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남학생들이나 성인남성들의 진로장벽 지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미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성들도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진로 선택 및 적응의 과정에서 장벽을 지각하고 있고, 각 장벽에 대한 지각 정도나 영역에서 성차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ent 등(Lent et al., 1994; Lent et al., 2000)은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에서 “진로에서 나타나는 흥미와 목표일치에 있어서 성별차이는 기회구조, 지지체제, 사회화 과정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각된 진로장벽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다”(1994, p. 108)고 기술하고 있다. Swanson과 Tokar(1991a, 1991b)는 남녀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같았으나, 몇몇 진로장벽의 경우 남녀가 그 중요도를 다르게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Luzzo(1996)도 미국의 남녀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각된 진로장벽의 성별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보다 더 많은 비율의 여학생들이 가족관련 진로장벽을 제시하였다.

즉,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진로 및 진학문제 결정과 실현을 저해하는 내적, 외적 진로장벽에 대한 연구가 지금과 같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남성들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지금까지 진로장벽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직업선택을 바로 앞두고 있는 대학생 집단이나 실업계 고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 장벽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물론, 진로장벽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다. 직업선택을 바로 앞둔 여성이나 남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그 상황에서 갑자기 획득된 것이라기 보다는 발달과정을 통해 꾸준히 발달해 온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입직시기보다 앞선 시기인 청소년 시기의 진로장벽의 지각의 발달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들

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연구에 좀 더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McWhirter et al., 2000).

지금까지 우리나라 진로장벽 연구의 중요한 한계점인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과 입직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장벽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 진다. 그리고 남자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내용과 강도, 그리고 관련 변인들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진로장벽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교 남학생에게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이미 개발된 진로장벽 척도를 검토해 보았다. 먼저, 지금까지 개발된 진로장벽 척도 가운데 활용도가 가장 높으면서 심리측정학상으로 양호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이는 검사는 Swanson과 Tokar(1991b)가 개발한 진로장벽 검사(CBI, Career Barriers Inventory)이다. 그러나, CBI는 102문항으로 길이가 길어 연구에서 활용도를 제한한다는 점과 문항의 내용이 중복되는 척도들이 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다(Swanson, Daniels, & Tokar, 1996).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Swanson(1994)은 16개의 척도를 가진 84문항의 단축형 진로장벽검사(CBI-S: Career Barriers Inventory-Short form)을 개발한 후, CBI-S(Swanson, 1994)의 요인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작업을 했다(CBI-R: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Swanson & Daniels, 1995b). CBI-R에서는 12개의 문항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보다 포괄적 진로장벽의 영역을 포함시켰다. CBI-R의 13개 하위요인은 다음과 같다: 성차별, 자신감 부족, 다중 역할 갈등, 자녀와 진로 요구사항 간의 갈등, 인종 차별, 부적절한 준비, 중요한 타인의 불인정, 의사결정의 어려움, 진로 불만족, 비전통적 진로선택에 대한 지지 부족, 장애/건강 염려, 노동 시장의 제약, 관계망 만들기/사회화의 어려움. 이러한 여러 차례의

개정 작업을 통해서 CBI-R(Swanson & Daniels, 1995b)이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BI는 처음에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문항수(n=70)와 척도의 수(n=13)가 많아서 학교나 상담기관 현장에서 쉽게 검사도구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McWhirter와 동료들(McWhirter, 1997; McWhirter et al., 2000)은 미국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추구하는데 있어 잠재적인 장벽으로 지각하는 장벽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원래 24개 항목(1997)으로 된 도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후속연구(2000)에서는 84개 항목으로 된 교육장벽지각(Perceptions of Educational Barriers: PEB)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런데 PEB는 인종차별이나 십대임신/육아 및 십대 결혼 등과 같이 우리나라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당면한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고, 한국과 미국의 입시, 교육제도 및 사회문화적 환경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비해 이은설(2005)이 개발한 진로장벽 측정도구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직업 환경에 바탕을 두고 있고, 초·중·고 청소년들은 대상으로 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도구는 여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에 초점을 두고 있어 남자청소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의 경우 진로에 있어 여성이 지각하는 장벽과 남성이 지각하는 장벽은 다르기 때문에 여성 진로장벽 척도를 남성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Gysbers, Heppner, & Johnston, 2003; McWhirter, 1997).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도구들이 우리나라 남자 청소년들이 경험하거나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측정도구를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 개발 및 타당화를 수행하였다. 국내의 진로장벽 연구가 이제 시작단계에 있어 남자 청소년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초·

중·고등학교 남학생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지각한 진로장벽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진로장벽 척도가 초·중·고등학생에게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학교급간 본 척도의 요인구조가 동등한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요인동등성이 검증되면 초·중·고등학생에 따라 진로장벽의 요인별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진로장벽에 대한 초·중·고등학생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남학생의 진로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 남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검사를 개발하기 위해 서울, 경기지역 청소년 남학생 705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실시되었고, 이 중 검사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표본 47부를 제외한 658명의 표본이 검사에 사용되었다. 학교표집에 있어서는 가정형편 및 교육환경의 지역차를 감안하여 초·중·고 각 학교급 별로 강남지역 2학교, 강북지역 2학교, 경기지역 2학교씩을 선정하여 총 18개의 학교를 선정하였다. 각 학교에서는 각 학년별 1개 학급의 남학생만 검사에 참여하였다. 표집인원은 학급별로 초등학생 209명(31.8%), 중학생 220명 (33.4%), 고등학생 229명 (34.9%)이었다. 학년분포의 경우 초등학생은 4학년이 64명(9.7%), 5학년이 73명(11.1%), 6학년이 72명(10.9%), 중학생은 1학년이 79명(12.0%), 2학년이 75명(11.4%), 3학년이 66명(10.0%), 고등학생은 1학년이 161명(24.5%), 2학년이 68명(10.3%)으로 구성하여 각 연령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게 하였다. 단 학업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3학년은 표집에서

제외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초·중·고 남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을 측정하는 검사를 개발하고 타당화한 후 그 잠재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을 개발하는 단계로서, Swanson과 Daniels(1995b)의 진로장벽 검사를 바탕으로 기존 진로장벽척도 문항을 수집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활용도가 높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진 진로관련 호소문제를 추출하여 이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독특한 특성들을 반영하는 호소문제들도 진로장벽 문항으로 수집하였다. 진로장벽 문항들을 수집한 후 구인을 결정하고 문항들을 수정하는 작업들을 여러번 거쳤다. 또한 같은 과정으로 문항이 수집된 초·중·고 여학생을 위한 진로장벽척도를 토대로 하고, O'Neil 등(1986)의 성역할 갈등 척도(Gender Role Conflict Scale; GRCS)를 바탕으로 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진로장벽 지각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성역할 요인)의 문항을 비교하면서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둘째, 문항들의 이해도가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현직 초등학교 교사 5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47문항의 예비문항에 대해 이해도와 구인, 문항수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이에 따라 수정한 문항으로 실제 초등학교 30명에게 이해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에게 각 문항에 대한 이해 정도를 세 단계로 나누어 표시하게 하고, 검사 실시 후 이해가 어렵다고 평가된 문항들에 대해 학생들과 인터뷰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셋째, 이해도 검사를 통해 수정된 문항을 초, 중, 고 남학생들에게 실시하였다. 질문지와 실시안내문이 해당학교에 우편을 통해 전달되었고, 담당

교사의 지도하에 검사가 이루어졌다. 총 47문항의 질문지는 Likert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고, 질문지 수행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문항분석과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평균, 표준편차, 문항-총점 간 상관을 통해 삭제할 문항을 확인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요인을 분석하여, 총 42문항의 초·중·고 진로장벽 척도를 확정하였다.

넷째, 확정된 진로장벽 척도를 초·중·고 남학생들에게 실시하였다.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본척도는 42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이다. 본 검사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의 모형과 경쟁모형을 개발하고 적합도를 비교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다섯째, 각 학교급별 잠재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구조동등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잠재변인이 각 집단에 동일한 척도여야 한다는 선행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척도동일성(scalar invariance)을 검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초·중·고 남학생들이 지각한 진로장벽의 잠재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3. 측정도구

1)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

예비검사와 본검사를 통해 구성된 최종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는 자기이해의 부족 4문항, 자신감의 부족(학업태도 및 성적) 11문항,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8문항,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6문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4문항, 진로 및 직업 정보의 부족 4문항, 경제적 어려움 5문항으로 총 42문항이다.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는 초·중·고 여학생의 진로장벽 척도(황매향·이은설·유성경, 2005)와 함께 문항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각 척도의 하위요인은 동일하다. 7요인 중 6개의 하위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은 성별과 관계없이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성별이 영향을 주는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요인의 문항만을 수정하였다. 이는 Swanson & Daniel(1985b)의 진로장벽 검사와 O’Neil 등(1986)의 성역할 갈등 척도 (Gender Role Conflict Scale; GRCS)의 4가지 하위요인, 성공 권력 경쟁, 감정 억제, 남성간 애정 행동 억제, 일과 가족 관계 간의 갈등을 토대로 문항이 개발되었고, 본 검사 후 자료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모든 문항은 ‘전혀아니다’(1)에서 ‘매우그렇다’(4)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역채점 문항은 없으며 1-4점 사이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진로장벽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분석에서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92로 나타났다.

〈표 1〉 초, 중, 고 남학생의 진로장벽 척도의 하위요인 및 문항

하위요인(문항수)	문항번호 및 내용
자기이해의 부족	sa1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sa2 나는 나를 잘 몰라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sa3 나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sa4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낮은 학습효능감	sb1 나는 무엇을 하든 자신감이 부족하다.
	sb2 나는 끈기가 부족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sb3 나는 수학을 못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sb4 TV와 컴퓨터 등 주위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미래가 걱정된다.
	sb5 나는 컴퓨터를 못해서 원하는 직업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하위요인(문항수)	문항번호 및 내용
낮은 학습효능감	sb6 나는 힘든 일이 생기면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sb7 나는 잠이 많아서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sb8 내가 고등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sb9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만큼 실력이 안된다.
	sb10 나는 공부방법을 몰라서 실력발휘를 못할 것이다.
	sb11 나는 몸이 약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어 려울 것이다.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¹⁾	sc1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sc2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 돈을 잘 버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sc3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성공해야 한다.
	sc4 나는 남자라서 여자보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
	sc5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리더가 되어야 한다
	sc6 나의 행복은 내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sc7 나는 남자라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sc8 내가 공부를 못하면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을 것 이다.

1)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척도의 문항

- sc1 나는 결혼을 하면 직업을 갖지 않을 것이다.
- sc2 내가 원하는 직업은 주로 남자들이 하는 직업이라서 걱정이다.
- sc3 나의 행복은 내 능력보다도 미래의 남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sc4 나는 여자라서 너무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
- sc5 내가 공부를 너무 잘하면 남자들이 싫어할 것이다.
- sc6 나는 여자라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것이다.
- sc7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차별대우를 받을 것이다.
- sc8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적다.

하위요인(문항수)	문항번호 및 내용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sd1 나는 여자친구가 내가 선택한 직업을 좋아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된다.
	sd2 앞으로 내 직업선택은 부모님의 반대나 참견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sd3 부모님이나 집안의 기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sd4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높아 부담스럽다.
	sd5 내가 선택한 직업을 친구들이 좋지 않게 예기하면 그 직업이 싫어진다.
	sd6 우리 선생님(학교, 학원, 과외 선생님 등)께서 내가 원하는 직업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 포기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se1 나중에 내가 직업이 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다.
	se2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찾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se3 내가 원하는 직업은 인기가 많아서 불안하다.
	se4 내가 선택한 직업이 앞으로 인기가 떨어질까봐 걱정이다.
진로 및 직업 정보의 부족	sf1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
	sf2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모른다.
	sf3 나는 직업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모른다.
	sf4 나는 관심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모른다.

하위요인(문항수)	문항번호 및 내용
경제적 어려움	sg1 우리집에 돈이 없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만 한다.
	sg2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것이다.
	sg3 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 고민이 된다.
	sg4 대학을 생각하면 돈 걱정이 앞선다.
	sg5 원하는 학원(과외)에 다닐 형편이 안되어서 꿈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4. 자료분석

청소년 남학생의 진로장벽 척도의 하위요인의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이용한 잠재평균분석(LMA)을 실시하였다. 잠재변수의 집단 간 평균 차이는 잠재변인이 모든 집단에 동일한 척도로 놓일 때에만 추정이 가능하므로, 잠재평균분석(LMA)은 모든 집단에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척도동일성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Steenkamp & Baumgartner, 1998). 이러한 가정의 검증을 통해 관찰된 평균차이가 오차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집단의 잠재변인의 실제 차이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Hong, Malik, & Lee, 2003).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청소년 남학생의 진로장벽 척도의 타당화와 잠재평균분석을 위하여 Hong et al. (2003)의 연구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의 본검사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가설화된 7요인 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함으로써 7요인 모형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둘째,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가 초·중·고 각 학교급별 학생들에게 동일한 요인구조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고,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척도동일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지각의 학교급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의 예비검사, 본검사의 문항분석은 SPSS 11.0을, 확인적 요인분석 및 잠재평균비교에는 AMOS 4.0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의 내적합치도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의 실시 결과를 토대로 문항에 대한 양호도와 각 하위요인에 대한 내적합치도를 확인하였다. <표 2>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모든 문항은 평균 1.56에서 2.95의 값을 나타냈고, 표준편차는 .63에서 .94의 범위를 보였다.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 전체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92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자기이해의 부족 .84, 낮은 학습효능감 .83, 성역할 갈등 .8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68,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68, 직업 및 진로 정보의 부족 .77, 경제적 어려움 .72로 적정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 상관 및 내적 합치도(N=658)

구인	문항번호	평균	표준편차	문항-총점 상관	신뢰도
자기이해의 부족	a1	2.33	.86	.54	$\alpha = .84$
	a2	2.16	.91	.62	
	a3	2.14	.87	.64	
	a4	2.03	.87	.61	

구인	문항번호	평균	표준편차	문항-총점 상관	신뢰도
자신감부족 (학업 및 성적문제)	b1	2.24	.79	.45	$a = .83$
	b2	2.07	.81	.55	
	b3	1.85	.76	.48	
	b4	2.42	.90	.48	
	b5	1.67	.72	.39	
	b6	1.98	.74	.42	
	b7	1.78	.80	.46	
	b8	2.66	.90	.52	
	b9	2.35	.89	.59	
	b10	2.22	.89	.56	
	b11	1.64	.76	.39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c1	2.95	.84	.27	$a = .80$
	c2	3.12	.84	.18	
	c3	2.65	.88	.27	
	c4	2.36	.90	.35	
	c5	2.53	.94	.34	
	c6	2.82	.89	.33	
	c7	2.34	.91	.41	
	c8	2.39	.91	.27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d1	1.91	.85	.43	$a = .68$
	d2	1.91	.90	.31	
	d3	1.89	.80	.49	
	d4	2.41	.92	.43	
	d5	1.84	.86	.48	
	d6	1.71	.74	.43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e1	2.34	.94	.61	$a = .68$
	e2	2.30	.98	.63	
	e3	2.24	.94	.42	
	e4	1.91	.84	.50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f1	2.16	.87	.48	$a = .77$
	f2	2.24	.93	.58	
	f3	2.36	.88	.45	
	f4	2.10	.86	.48	
경제적 어려움	g1	2.16	.81	.42	$a = .72$
	g2	1.64	.63	.45	
	g3	2.13	.84	.45	
	g4	2.18	.91	.46	
	g5	1.56	.64	.46	

2.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에 대한 요인구조 검증

본 검사를 통해 총 42개의 문항이 각 하위요인을 측정하기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표준화 계수를 측정하였다. 모형의 모수추정치에 대한 표준화 값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각 문항의 표준화 계수는 .303에서 .789까지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문항이 각 하위요인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단계로 본 연구의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인 7요인 모형과 경쟁모형인 6요인 모형, 8요인 모형을 선정하여 적합도 검증을 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세부 내용은 <표 3>와 같다.

<표 3> 진로장벽 척도의 연구모형 및 경쟁모형

모형	내용
8요인 모형	자기이해부족, 자신감부족, 학업 태도 및 성적문제, 성역할갈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7요인 모형 (연구모형)	자기이해부족, 낮은 학습효능감(자신감부족 + 학업 태도 및 성적문제), 성역할갈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6요인 모형	자기이해부족, 낮은 효능감(자신감부족 + 학업 태도 및 성적문제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성역할갈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특정 모형이 실제 자료와 부합하는 정도를 적합도 지수들을 사용하여 평가하는데, 이 중 χ^2 는 표본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약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에 대한 합치도 지수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표본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하고, 모

형의 복잡도를 반영하는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teiger & Lind, 1980), NNFI(non-normed fit index; Bentler & Bonett, 1980)를 모형평가 기준으로 하여 어떤 모형이 자료에 더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Hu & Bentler (1999)에 따르면 RMSEA는 절대적 적합지수로 .06 또는 그 이하일 경우 적합하다고 판정되고, NNFI는 상대적인 지수로 .95이상일 때 적합하다고 판정된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에 나와 있다.

<표 4> 진로장벽척도의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합치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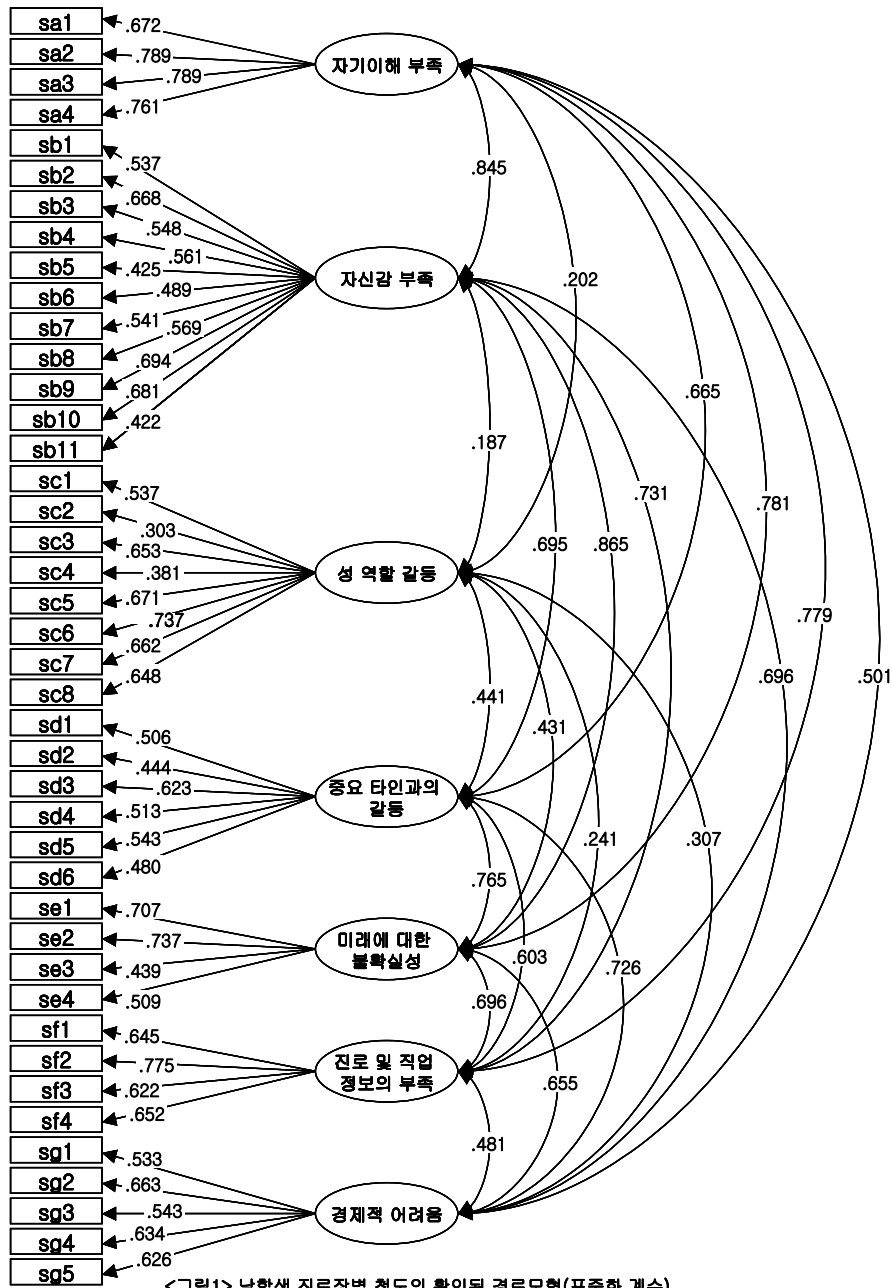
모형	χ^2	df	RMSEA	NNFI
8요인 모형	1236.035	791	.051(.045-.056)	.817
7요인 모형 (연구모형)	1245.964	798	.051(.045-.056)	.817
6요인 모형	1280.484	804	.052(.047-.057)	.807

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NNFI=non-normed fit index

분석 결과로 6요인 모형은 RMSEA와 NNFI 지수 모두에서 가장 적합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7요인과 8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면, RMSEA와 NNFI 지수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두 모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우선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참고하였다. 또한 상담전문가 2명, 통계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정을 거치고, 경쟁모형과의 RMSEA와 NNFI 지수를 고려하여, 8요인 보다는 연구 모형인 7요인이 더 적합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3.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에 대한 구인동등성 검증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가 각 학교급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



<그림 1> 남학생 진로장벽 척도의 확인된 경로모형(표준화 계수)

는 척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우도측정법을 적용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은 집단간 요인구조가 같은지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홍세희, 2004).

1) 형태동일성 검증

위계적인 순서로 내재되어 있는 구인동등성 검증(Hong et al., 2003)의 첫 번째 단계로 각 학교급 간 요인구조가 같은지 검증하기 위해 앞서 설정된 경쟁모형을 집단별로 비교하고 각 집단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이 동일하게 선정되는지 확인하였다.

<표 5>와 같이 초·중·고 각 학교급별 모든 경우에서 7요인과 8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7요인과 8요인이 6요인보다 적합도가 좋고, 중학교는 근소한 차이로 8요인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경쟁모형인 6요인과 8요인 모형보다 연구모형인 7요인 모형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연구모형과 8요인 모형의 RMSEA값과 NNFI값이 동일하게 나타났고, 중학교의 경우 연구모형보다 8요인모형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지수 모두 그 차이가 매우 근소하고,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증과정을 통해 세 집단 모두에서 7요인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집단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이 연구모형인 7요인 모형으로 동일하게 선정되었으므로 형태동일성이 확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학교급 별로 7요인 모형에서 추정된 모수 추정치는 <표 6>과 같이 산출되었다.

〈표 5〉 학교급별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학교급	모형	χ^2	df	RMSEA	NNFI
초등학교	8요인 모형	1307.225	791	.056 (.051-.061)	.803
	7요인 모형	1321.067	798	.056 (.051-.061)	.803
	6요인 모형	1397.070	804	.060 (.054-.065)	.778
중학교	8요인 모형	1439.701	791	.061 (.056-.066)	.782
	7요인 모형	1461.048	798	.062 (.057-.067)	.779
	6요인 모형	1489.769	804	.062 (.057-.067)	.774
고등학교	8요인 모형	1519.593	791	.064 (.059-.068)	.748
	7요인 모형	1523.966	798	.063 (.058-.068)	.751
	6요인 모형	1563.491	804	.064 (.060-.069)	.742

〈표 6〉 학교급별 7요인 모형의 모수 추정치

모수	초등학교 추정치	중학교 추정치	고등학교 추정치
a_1 ← A	0.947*(.76)	0.947*(.77)	0.947*(.81)
a_2 ← A	1.060*(.78)	1.060*(.77)	1.060*(.78)
a_3 ← A	1.000 (.73)	1.000 (.73)	1.000 (.76)
b_1 ← B	0.939*(.82)	0.939*(.80)	0.939*(.81)
b_2 ← B	0.926*(.79)	0.926*(.79)	0.926*(.80)
b_3 ← B	1.000 (.73)	1.000 (.77)	1.000 (.80)
c_1 ← C	1.055*(.66)	1.055*(.74)	1.055*(.72)
c_2 ← C	0.881*(.58)	0.881*(.66)	0.881*(.68)
c_3 ← C	1.268*(.75)	1.268 (.82)	1.268*(.84)
c_4 ← C	1.000 (.59)	1.000 (.69)	1.000 (.75)
d_1 ← D	1.117*(.65)	1.117*(.58)	1.117*(.61)
d_2 ← D	1.165*(.63)	1.165*(.71)	1.065*(.67)

모수	초등학교 추정치	중학교 추정치	고등학교 추정치
d_3 $\leftarrow$ D	1.000 (.62)	1.000 (.63)	1.000 (.63)
e_1 $\leftarrow$ E	1.471*(.67)	1.471*(.66)	1.471*(.70)
e_2 $\leftarrow$ E	1.543*(.68)	1.543*(.69)	1.543*(.71)
e_3 $\leftarrow$ E	0.833*(.37)	0.883*(.39)	0.833*(.38)
e_4 $\leftarrow$ E	1.000 (.49)	1.000 (.53)	1.000 (.47)
f_1 $\leftarrow$ F	1.052*(.59)	1.052*(.66)	1.052*(.67)
f_2 $\leftarrow$ F	1.284*(.74)	1.284*(.73)	1.284*(.79)
f_3 $\leftarrow$ F	0.910*(.53)	0.910*(.57)	0.910*(.62)
f_4 $\leftarrow$ F	1.000 (.61)	1.000 (.64)	1.000 (.64)
g_1 $\leftarrow$ G	1.140*(.70)	1.140*(.74)	1.140*(.75)
g_2 $\leftarrow$ G	1.243*(.74)	1.243*(.72)	1.243*(.77)
g_3 $\leftarrow$ G	1.000 (.45)	1.000 (.51)	1.000 (.51)
A $\leftrightarrow$ B	0.251*(.86)	0.248*(.85)	0.216*(.74)
A $\leftrightarrow$ C	-0.018 (-.06)	0.113*(.37)	0.121*(.39)
A $\leftrightarrow$ D	0.134*(.55)	0.161*(.66)	0.169*(.69)
A $\leftrightarrow$ E	0.192*(.74)	0.217*(.83)	0.180*(.69)
A $\leftrightarrow$ F	0.237*(.71)	0.254*(.77)	0.258*(.78)
A $\leftrightarrow$ G	0.143*(.59)	0.105*(.43)	0.106*(.43)
B $\leftrightarrow$ C	-0.001 (-.00)	0.057*(.24)	0.103*(.45)
B $\leftrightarrow$ D	0.115*(.63)	0.127*(.70)	0.135*(.74)
B $\leftrightarrow$ E	0.161*(.82)	0.171*(.87)	0.160*(.82)
B $\leftrightarrow$ F	0.186*(.75)	0.181*(.73)	0.143*(.57)
B $\leftrightarrow$ G	0.131*(.72)	0.134*(.74)	0.118*(.64)
C $\leftrightarrow$ D	0.072*(.37)	0.098*(.51)	0.096*(.50)
C $\leftrightarrow$ E	0.084*(.40)	0.095*(.46)	0.129*(.62)
C $\leftrightarrow$ F	-0.000 (-.00)	0.098*(.37)	0.105*(.40)
C $\leftrightarrow$ G	0.051*(.26)	0.052*(.26)	0.097*(.50)
D $\leftrightarrow$ E	0.146*(.89)	0.109*(.67)	0.116*(.71)
D $\leftrightarrow$ F	0.114*(.55)	0.123*(.59)	0.117*(.56)
D $\leftrightarrow$ G	0.129*(.84)	0.097*(.63)	0.110*(.72)
E $\leftrightarrow$ F	0.129*(.58)	0.170*(.76)	0.134*(.60)
E $\leftrightarrow$ G	0.135*(.82)	0.115*(.70)	0.078*(.48)
F $\leftrightarrow$ G	0.122*(.59)	0.086*(.41)	0.072*(.34)

주: 모수치는 비표준화계수이고 괄호안의 값은 표준화계수임.

*표는 $\alpha=.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임.

2) 측정동일성 검증

형태동일성이 확보된 다음으로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었다. 측정동일성의 검증을 위해 세 집단의 요인계수가 같다고 가정한 경우 기초모형에서 적합도가 더 나빠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초모형(모형1)과 세 집단의 요인계수가 같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2의 차이를 χ^2 차이 검증하였다. <표 8>에 나타난 것처럼 두 모형간의 χ^2 차이 값은 61.589이고 자유도의 차이 값은 34로 $\alpha=.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χ^2 뿐 아니라 χ^2 의 차이값 역시 표본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Anderson & Gerbing, 1988; Marsh & Grayson, 1990; Sreenkamp & Baumgartner, 1998), 적합도 평가의 기준으로 표본크기의 영향을 덜 받는 RMSEA (Steiger & Lind, 1980), NNFI(Bentler & Bonett, 1980)를 고려하였다. <표 7>의 결과는 모형1과 모형2의 RMSEA와 NNFI가 동일하게 나타난

<표 7> 동일성 검증에 대한 합치도 지수

	χ^2	df	NNFI	RMSEA (90% CI)
모형1: 형태동일성(기초모형)	1277.611	693	.982	.036 (.033-.039)
모형2: 측정동일성	1339.200	727	.982	.036 (.033-.039)
모형3: 측정 및 척도동일성	1601.270	775	.977	0.040 (0.038-0.043)
모형4: 측정 및 부분 척도동일성	1420.258	743	.981	.037 (.034-.040)
모형5: 측정, 부분 척도 및 요인 분산동일성	1488.241	757	.980	.037 (.034-.040)

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NNFI=non-normed fit index
것을 보여준다. 즉, 세 집단의 요인계수가 같다고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

합도가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척도의 문항들이 초·중·고 세 집단에 있어 남학생들에게 동일하게 기능하고 있으므로 세 집단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8> 동일성 검증을 위한 χ^2 차이 검증 결과

	$\Delta\chi^2$	Δdf	결과
측정동일성 검증: 모형1 vs. 모형2	61.589	34	기각
척도동일성 검증: 모형2 vs. 모형3	262.070	48	기각
부분 척도동일성 검증: 모형2 vs. 모형4	21.058	1	기각
요인분산동일성 검증: 모형4 vs. 모형5	67.983	1	기각

주: χ^2 값은 $\alpha=.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임

3) 척도동일성 검증

다음으로 초·중·고 세 집단 간 구인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척도 동일성 가정을 검증하였다. 이는 세 집단 간에 요인계수가 같다고 가정한 모형2와 각 측정변수의 절편까지 동일화제약을 가한 모형3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모형2와 모형3의 χ^2 차이 값이 262.070, 자유도가 48로 두 모형의 차이가 $\alpha=.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7>과 같이 모형2보다 모형3의 RMSEA와 NNFI도 확실히 나빠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 집단 간의 측정변수의 절편이 다른지를 확인하였고, 13개 측정변수의 동일화 제약을 풀어줌으로써(모형4) 완전히 제약을 가한 척도동일성 모형(모형 3)에 비해서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좋아졌다. 이러한 부분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분 측정동일성 모형4와 측정동일성 모형2 간에 χ^2 차이 검증을 실

시한 결과 χ^2 차이 값이 21.058, 자유도가 1로 두 모형의 차이가 $\alpha=.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의 앞부분에서 인용한 것처럼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데 있어 χ^2 의 차이값 역시 표본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nderson & Gerbing, 1988; Marsh & Grayson, 1990; Sreenkamp & Baumgartner, 1998), 적합도 평가 기준으로 RMSEA (Steiger & Lind, 1980)를 고려하였다. <표 7>의 결과와 같이 RMSEA의 경우 모형2가 .036에서 모형4가 .037로 모형 2와 모형4에서 거의 유사하므로 부분 척도동일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Bryne, Shavelson, Muthen(1989)와 Steenkamp와 Baumgartner(1998)에 따르면 각 요인에 대한 잠재평균 비교와 같은 다음 단계의 검증을 위해서 완전 측정/척도 동일성의 성립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부분 척도동일성의 성립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분측정동일성이 확인된 것을 바탕으로 잠재평균 비교를 하였다.

3. 진로장벽 척도에 대한 초·중·고 잠재평균 비교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부분척도 동일성의 확보에 따라 각 학교급에 따라 진로장벽의 수준이 달라지는지 잠재평균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잠재평균비교(LMA)에서 잠재변인은 직접 추정하지 못하지만(Hancock, 1997), 한 집단의 평균을 0으로 고정시킴으로서 다른 집단과의 평균차이를 통해 집단간의 차이를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참조집단의 평균을 0으로 고정하면 관찰된 다른 집단의 평균이 바로 집단간의 잠재평균차이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Hong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를 참조집단으로 하여 그 잠재변수 평균을 0으로 고정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잠재평균 비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잠재평균 차이를 비교하였다. 잠재평균 차이와 효과크기의 값은 <표 9>,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9>, <표 10>에서 나타나듯이 각 요인별 잠재평균의 차이는 초, 중 학교 간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제적 어려움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하였고, 중, 고등학교에서는 반대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자기이해의 부족 세 요인에서 유의미하였으며, 다른 요인들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9> 진로장벽 요인에 대한 초·중 학교급간 잠재평균 차이분석

요인	초등학교	중학교	효과크기(d)
자기이해의 부족	-0.37*	0.00	0.59
자신감 부족	-0.28*	0.00	0.60
성역할 갈등	0.12*	0.00	0.24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0.14*	0.00	0.38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0.13	0.00	0.31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0.25*	0.00	0.47
경제적 어려움	-0.08	0.00	0.21

주: *은 $\alpha=.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임.

<표 10> 진로장벽 요인에 대한 중·고 학교급간 잠재평균 차이분석

요인	중학교	고등학교	효과크기(d)
자기이해의 부족	0.00	0.18*	0.29
자신감 부족	0.00	0.02	0.04
성역할 갈등	0.00	0.04	0.08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0.00	0.00	0.00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0.00	0.20*	0.48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0.00	0.08	0.15
경제적 어려움	0.00	0.11*	0.28

주: *은 $\alpha=.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임.

그러나 이 결과만을 토대로 볼 때, 산출된 잠재변수의 차이값이 어느

정도로 큰 차이인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Hong 등(2003)의 연구절차에 따라, 잠재변수의 차이값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Cohen의 효과크기(d)를 산출하였다. 효과크기 산출에 있어서 두 집단에서 산출된 요인의 분산이 동일한 경우에만 공통 표준편차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요인분산 동일성 가정이 검증되어야 한다. 요인분산 동일성 검증은 측정 및 부분 척도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4와 각 요인분산이 동일하다는 제약까지 한 모형5와의 χ^2 차이 검증을 함으로서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8>에서처럼 χ^2 차이 값이 67.983 자유도가 1로 두 모형의 차이가 α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합도 비교 기준으로 RMSEA와 NFI를 보았을 때, <표 7>의 결과와 같이 RMSEA의 경우 모형 4와 모형5가 .037으로 같고, NFI가 근사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인 분산 동일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요인분산동일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효과크기의 값은 공통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산출되었다. 각 하위요인별 공통 표준편차는, 자기이해의 부족 0.63, 자신감의 부족 0.47,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0.49,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0.37,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0.42,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0.53, 경제적 어려움 0.39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각 잠재평균 차이의 효과 크기는 <표 9>과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Cohen(1988)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d 값이 .3는 작은 것으로, .5는 중간 수준으로, .8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크기로 미루어 보았을 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보다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차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자기이해의 부족, 자신감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요인에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로 평균 차이가 있고, 성역할 갈등요인과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요인에서는 적은 정도의 효과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성역할 갈등에서는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지각을 덜 하고 나머지 요인들에서는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각각의 요인별 장벽을 더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학교

와 고등학교의 차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나타내고 있고, 자기이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요인에서는 적은 정도의 효과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세 요인 모두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각 요인의 장벽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발달 과정에 있는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진로장벽 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Swanson과 Daniels(1995b)의 진로장벽검사 개정판(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의 13개의 하위요인을 기본으로 하여 국내 실정 및 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진로장벽 척도를 제작하고자 했다. 국내외의 관련 척도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청소년이 이용하는 주요 네이버, 커리어넷, 한국청소년 상담원의 게시판에서 청소년들의 진로 관련 호소문제를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7개의 하위요인이 선정되었다.

예비검사와 본검사를 통해 자기이해의 부족 4문항, 학습효능감 11문항,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8문항,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6문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4문항, 진로 및 직업 정보의 부족 4문항, 경제적 어려움 5문항 등 총 42문항의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했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구성된 7요인의 진로장벽 척도가 제시된 다른 대안적 구조모형들보다 양호한 모형으로 나타나 이 모형이 우리나라 초·중·고 남학생의 진로장벽을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임이 확인되었고,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역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발된 척도가 청소년기 남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을 측정하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이며, 미래의 연구를 위한 기초도구가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를 초·중·고 남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통해 구인동등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부분 척도동일성이 확보되어 학교급간 구인동등성이 검증되었으며, 이는 본 척도가 초·중·고 남학생에게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초·중·고 남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잠재평균을 추정하여,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제적 어려움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반대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자기이해의 부족 세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은 학년이 높아지면서 점점 높아지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는 자기이해의 부족, 자신감 부족, 성역할 갈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등의 영역에 대한 장벽을 지각하게 되고,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는 보다 현실적인 장벽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장벽 지각이 발달하게 된다. 자기이해의 부족에 대한 장벽 지각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세계에 대한 현실적인 지각이 서구의 경우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황매향·김지현·유정이, 2003)와도 일관되고 있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장벽 지각의 발달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바탕을 둔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문제를 들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수도권 지역의 초·중·고에서 지역을 안배하여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수도권 지역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초·중·고 남학

생들에 대한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 남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를 확보하고 구인타당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준거타당도와 예언타당도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남학생이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다른 심리적 변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 과정에서 진로장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진로장벽 척도를 이용하여 남자 청소년들의 진로장벽의 지각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선택과 진로 진전과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초·중·고 학교급별 진로장벽 지각의 차이에 관한 분석은 잠정적 결론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진로장벽 연구는 주로 취업을 앞둔 고교생 또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실시되어, 그 발달과정에 대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즉,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장벽에 대한 지각이 발달과정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초기의 진로관련 이론들인 진로선택 이론과 진로발달 이론은 주로 적성, 흥미, 기술, 가치관 등 개인의 내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진로선택 및 발달 이론은 그 핵심에 있어서 개인들은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가정한다. 진로상담자의 역할은 흥미, 기술, 가치관을 진단하고, 각 개인이 적절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다(Gysbers, Heppner, Johnston, 200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진로장벽에 대한 연구는 보다 현실적인 진로지도 및 교육을 위해 그 중요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후속 연구와 청소년지도 현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즉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는 현재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벽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 심각한 장벽으로 지각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측정도구로서, 앞으로 진로장벽과 관련된 후속 연구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특히 초·중·고에 걸친 전체 청소년 연령층에 사용할 수 있는 측정도구이므로 진로발달 연구의 좋은 기초도구가 될 것이고, 이미 개발된 청소년용 여성진로장벽 척도(황매향·이은설·유성경, 2005)와 동일한 요인을 공유하고 있어 진로발달의 성차 연구에도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진로지도, 진로상담 등 진로와 관련된 교육 및 조력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진로장벽 개념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현실감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은영 (2001). 한국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숙·이중희 (2003). 일반계 여고생이 지각한 진학장벽. 상담학연구, 4(4), 773-788.
- 손은령 (2001). 여대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설 (2005). 초·중·고 여학생 진로장벽 척도의 개발 및 구인 타당도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4). 종단자료 분석: 잠재성장 모형 (워크샵 교재)
- 황매향·김지현·유정이 (2003). 중·고등학생의 직업인식 발달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1), 3-12.
- 황매향·이은설·유성경 (2005). 청소년용 여성진로장벽 척도의 개발 및 구인 타당도 검증. 상담학연구, 6(4).
- Anderson, J. C., & Gerbing, D. W.(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Bryne, B. M., Shavelson, R. J., & Muthen, B.(1989). Testing for the equivalence of factorial covariance and mean structures: The issue of partial measurement invariance. *Psychological Bulletin*, 105, 456-466.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Farmer, H. S. (1976). What inhibits achievement and career motivation in wome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6, 12-14

- Fitzgerald, L. F. & Crites, J. O. (1980). Toward a career psychology of women: 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know?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1), 44-62.
- Gysbers, N. C., Heppner, M. J., & Johnston, J. (2003). *Career counseling and practice*. Boston: Allyn & Bacon.
- Hancock, G. R. (199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thods of hypothesis testing of latent variable means.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0, 91-105.
- Hong, Sehee, Malik, M., & Lee, M.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 636-654.
- Hu, L.-Z.,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s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Lent, R. W., Brown, S. D., & Brenner, B., Chopra, S. B., Davis, T., Talleyrand, R., & Suthakaran, V. (2001). The role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in the choice of math/science educational options: A test of social cognitive hypothe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 474-483.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Monograp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6-49.
- Luzzo, D. A. (1996).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 occupational barrier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2(4), 239-248.
- Marsh, H. W., & Grayson, D.(1990). Public/Catholic difference in the high school and beyond data: A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to testing mean differences. *Journal of Educational Statistics*, 15, 199-235.
- Matthews, E. & Tiedeman, D. V. (1964). Attitudes toward career and marriage and development of lifestyle in young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1, 374-383.
- McWhirter, E. H. (1997). Perceived barriers to education and career: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124-140.
- McWhirter, E. H., Hackett, G., & Bandalos, D. L. (1998). A casual model of the educational plans and career expectations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gir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2), 166-181.
- O'Leary, V. E.(1974). Some attitudinal barriers to occupational aspirations in women. *Psychological Bulletin*, 81, 809-826.
- O'Neil, J. M., Helms, B. J., Gable, R. K., David, L., & Wrightsman, L. S. (1986). Gender-role conflict scale: College men's fear of femininity. *Sex Roles*, 14, 335-350.
- Sreenkamp, J. B. E. M., & Baumgartner, H. (1998). Assessing measurement invariance in crossnational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5, 78-90.
- Steiger, J. H., & Lind, J. M. (1980, June). *Statistically based tests for the number of common facto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Psychometric Society, Iowa City, IA.
- Swanson, J. L., & Daniels, K. K. (1995b).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 Swanson, J. L., & Daniels, K. K., & Tokar, D. M. (1996). Assessing perceptions of career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219-244.
- Swanson, J. L., & Tokar, D. M. (1991a).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 92-106.
- Swanson, J. L., & Tokar, D. M. (1991b).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 344-361.

ABSTRAC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 Career Barriers Scale for Male Adolescents

2) Hwang, Mae-Hyang* · Lee, A-Ra · Park, Eun-Hy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areer Barriers Scale for Korean male stud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examine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Scale. The Career Barriers Scale consists of seven factors of career barrier subscales, which are; lack of self-apprehension, lack of self-confidence, sex-role conflict and sexual discrimination, conflict with the influential others, uncertainty of future, lack of career-related information, and lack of financial support. In order to verify reliability and item descriptive statistics, Career Barriers Scale analysis was held on 705 male students of respectiv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Examination of construct validity was also held to check the adequacy of the number of factors. Its method include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results from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vealed that the seven-factor structure of Career Barriers Scale was adequate represent the career barrier structure of Korean male adolescent students.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hypothetical seven-factor model proved to be feasible, even outperforming the established models of six- or eight-factor ones. Each item revealed to have acceptable levels of internal consistency, as well as adequate standardized coefficient. Furthermore,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hich analyzed target schools in

* Gyeongin National Uni. of Education

** Ewha Womans' University

multiple group analysis so that their differences were at the latent mean level. As a result, the seven-factor structure of career barriers scale worked out well with the male stud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With configural, metric, and scalar invariance tested and approved, the examination of school differences remained at the latent mean level. The latent mean analysis indicated that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career barriers to a greater extent th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did, except the following factors; uncertainty of future and lack of financial support. Especially, factors including lack of self-apprehension and lack of self-confidence were bigger than medium of the effect size. And mean differences of the middle school and the high school students were showed significantly in following factors; lack of self-apprehension, uncertainty of future, and lack of financial support. High school students perceived more career barriers than middle school students. Considering the effect size, the latent mean differences between the elementary and the high school students were greater than those of the middle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study suggested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ractice and need for future researches.

Key Words : career barriers, male adolescent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ultiple group analysis

투고일 : 10월 28일, 심사일 : 12월 5일, 심사완료일 : 12월 20일